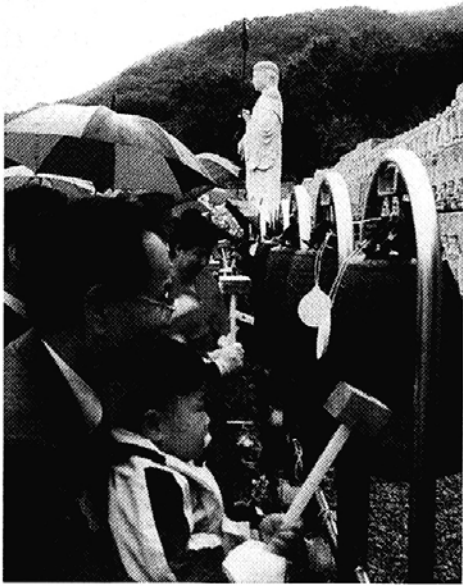


육지장사 새시대 새도량 조성

3백명 수용 청소년회관 갖춰 내년 개원 6만 지장상 봉안·문화공간 조성 계획도



새천년을 맞아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21세기형 종합전법도량이 생긴다.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 육근(六根)으로 직접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도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육지장사(주지 지원, 삼보사주지)는 10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 노천 지장전 불사현장에서 열린 108소법종을 타종식에는 불사 5백여명이 참가하여 범종치며 지장기도하는 장엄한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1m50cm높이에 50cm크기의 소법종을 매달아 동적인 젊은 세대들이 서서 종을 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성계 놀이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법성계관도 준비했다.

현재 6천평부지에 3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3백평규모의 청소년회관과 3백평의 요사채를 건립하고 있는 육지장사는 내년봄 개원과 함께 청소년 산중음악회와 락음악회, 2박3일 프로그램의 청소년수련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사찰입구에서부터 정비돼 있는 산책로에

는 한국의 야생화를 심고 한국의 대표시인 1백여명의 시비를 세워 문화공간으로 꾸민다. 내년초 1차적으로 5인의 시비를 완성한다는 방침.

육지장사는 앞으로 6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6만지장보살상을 봉안하고 온가족이 함께 찾아와 신행과 심신의 함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 놀이공간 탁구장 PC방 오락실 테니스장 등을 다양하게 건립할 계획이다. 또 육지장사를 방문하는 일반인과 타종교인, 불자들에게 지장수 지장전단을 선물로 주고 점심공양도 365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이와함께 부처님의 법문과 명상을 들으며 산행하며 산림욕을 할 수 있는 1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산행코스를 만들고 5시간 관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주지 지원스님은 "21세기는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 필요한 시대"라며 "육지장사에 오면 누구나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월정사 50년 중흥불사 회향

무량수전·종각·해탈문·박물관등 건립

내달 한암·탄허스님비 제막

월정사(주지 현해)는 13일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중흥불사회향 및 보살계 수계신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흥불사를 통해 월정사는 무량수전 삼성각 진부유치원 종각 진영당 범종루 금강루 해탈문 호지각 보장각(성보박물관)등의 불사를 마무리하여 교구본사로서의 위용과 한국불교 성지로 거듭나게 됐다.

월정사는 6·25전쟁을 거치며 사찰이 전소되어 명맥만 유지하다 50년전 탄허, 만해스님이 제1기 월정사 중흥불사를 발원하며 터를 닦았으며, 현해스님이 제2기 중흥불사를 일으키며 8년간 도량을 완비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열린 법회에서 주지 현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월정사는 통일시대와 21세기를 향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비전의 교육불사를 이루는 3차 중흥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월정사는 금강계단에서 보살계수계식을 갖고 48계를 지켜 불법을 수호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다



○월정사는 중흥불사를 발원한지 50년만에 불사를 완료하여 한국불교 성지로 거듭나게 됐다.

집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룡(월정사 조실)스님을 비롯하여 고산(조계종 총무원장) 법등(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현해, 현각, 정법, 도원(총회의원) 원행(삼화사 주지)스님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기수의원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정토선원 다섯부처님 봉안

염불선원도량 광주 정토선원(주지 도성)은 7일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토세상 만들기를 발원하며 지역 최초로 다섯부처님 봉안하는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봉안된 다섯부처님은 중앙 석가여래불, 동방 약사여래불, 서방 아미타불, 남방 보살불, 북방 불동성취불이다.

“경남 합천 영암사지는 통일신라때 세운 사찰” 동아대박물관 조사단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황매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영암사지(영암사지,사적 131호)는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말까지 있었고, 현재 유일하게 가람의 배치 흔적이 가장 정교하게 남아 있는 곳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20일부터 영암사지 발굴조사를 벌이고 있는 동아대박물관 조사단(단장 심봉근)은 9일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동아대 이동규교수는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영암사는 통일신라시대 지어진 뒤 고려말까지 존속된 사찰로 추정된다"며 "통일신라대에 축조된 사찰로서 건물터의 흔적이 완벽하게 남은 곳은 영암사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opia.com)

광주 망월동서 10만 관등법회

28일 태고종 민주영령 천도

5·18 민주영령 고혼천도 및 제2 건국을 위한 10만관등 대법회가 28일 오전 11시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총무원장 금명)주최로 광주 망월동 신묘역에서 열린다. 전통불교의식으로 열리는 이날 법회는 광주·전남영민회(법정스

님의 15명)가 신중작법과 함께 천도제를 올리며 박완일법사의 강연과 함께 10만관등대법회가 열린다. 광주·전남총무원장 금명스님은 "5·18 민주영령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제를 봉행하여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이며 신라불교 초전성지(初轉聖地)인 태조산(太祖山) 도리사(桃李寺). 도리사는 아도화상(阿度和尚)이 이곳에 불법해명(佛法慧命)을 전파하기 위해 개산한 민족불교의 성지이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

가 봉안된 적멸보궁이다. 그러나 도리사는 1977년 4월18일 서울 송가사 주지 상륜스님에 의해 오색 영통한 진신사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역사의 망각지대로서 묻혀 있었다.

사리탑 복원중 불사리 발견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2)

도리사 진신사리 발견 <상륜스님>

도리사는 79년 7월 사리탑 준공과 1983년 4월 적멸보궁 건립 이후 한국불교의 정신적 귀의처로서 전국인의 신심깊은 불자들의 참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륜스님(송가사 주지)이 도리사 진신사리를 발견하게 된 것은 간절한 구도심에서 기인했다. 71년 7월 송가사 주지로 부임한 뒤 향곡 선사의 "선객이면 도리사는 가뵈이지"하는 말에 몇 년 뒤 무작정 입승 스님과 신도와 함께 고행길을 떠나, 새벽 2시 경복구미시 태조산 아래 위치한 도리사에 도착했다.



○도리사 진신사리를 발견한 상륜스님(왼쪽), 오른쪽 위사진은 지름 2cm인 사리를 확대한 모습, 아래사진은 사리탑.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도화상이 좌선하던 좌선대를 참배하러 새벽 길을 걸던 중 칠성각 동북쪽 돌담 곁에 초라하게 쓰러져 있는 사리탑을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석종부도(石鐘浮屠)형태로 조성된 사리탑에는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이라는 한자가 선명하게 쓰여있었다.

상륜스님은 놀라서 같이 길을 걸던 도리사 주지 법성스님에게 "왜 사리탑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법성스님이 "가난한 절이라 불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스님이 복원해 주실래요"라고 답했다. 이에 상륜스님이 무심코 "그럼 제가 부처님 제자된 도리로 불사를 해보지요"라고 말한 것이 사리탑 복원의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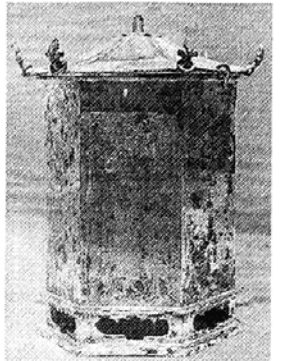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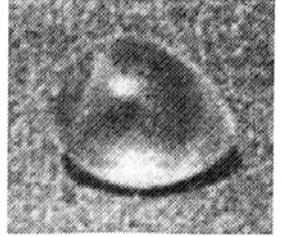
당시에는 북한산 송가사도 퇴락하여 곧 무너질 것처럼 어려운 때였지만 상륜스님은 부처님과 한 서약을 지키기 위해 원장과의 협력을 관 깊게 불사금을 마련하는 등 어렵게 공사에 착수했

아도화상 좌선대 참배가다 쓰러진 석종부도 불사발원

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된 것은 착공 후 1년이 지나 상륜스님과 신도들이 탑대(塔臺)를 복원하던 중의 일이었다.

"무너진 탑을 해체하다가 보니 남은 사리함과 오색이 영롱한 진신사리가 나타났어요. 그 모습이 꿈인지 생인지 모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도리사 사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부처님 사리와 달리 크기 도 제일이며, 타원형 투명체로서,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하고 부처님의 심지(心地)를 도리사에 심기 위해 모셔 온 진신사리임을 확실하다고 고종학자들은 밝혔다.



○도리사 진신사리를 발견한 상륜스님(왼쪽), 오른쪽 위사진은 지름 2cm인 사리를 확대한 모습, 아래사진은 사리탑.

부처님 진신사리와 인연이 깊었던 상륜스님은 송가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오직 기도와 참선에 전념, 서울의 대표적 기도도량으로 일구었다. 1백여명의 선방, 자주 방공을 하는 마애석불로 오르는 108돌계단, 국내 최대 규모의 73척 '민족통일기원 호국보탑'은 후손에 길이 남길만한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탑은 인도 기원정사 복원을 발원한 인도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기증받아 봉안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청년 불사를 무리없이 회향해 온 스님의 원력은 모두 '부처님 진신사리를 두 번이나 직접 모신데에서 나온 환희심의 발현'이란 게 주변인들의 말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랄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도화상님 주지

6.이대터 코스는 7.9일 일리며, 비문은 160인입니다.
7.전사주지는 본래는 인내를 무력으로 보았습니다.
8.고종은 서울역, 서울역, 조계사,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20분 거리

바른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협동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이 책이 서울대 선정도서

나관중의 '일본 삼국지'다

원작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삼국지! 범우비평판세계문학 41-0 '99 新개정판

원본 三國志

나관중/중국문학가 황병국 옮김

원작의 광대함과 박진감을 그대로 담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책은 편역하거나 문헌 삼국지가 아니라 중국 삼민서국과 문헌서국관을 대본으로 하여 원전에 가장 충실하게 옮긴 '원본 삼국지'입니다. 한시(漢詩) 원문, 주요전도(戰圖), 출사표(出師表) 등 각종 부록을 대거 수록한 99년 신개정판.

* 작품 해설 장기간(서울대 명예교수, 현문학 박사)
* 전5권/각 500쪽 내외 크라운판/각권 값 9,000원

범우사 서울시 미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FAX 717-0429 인터넷 주소 http://www.bumwoosa.co.kr

(무소유) 발간 25주년 기념 개정판

25년 전 (무소유) 초판본(76 x 159mm)에 보태주신 번역은 개정판양자를 보태드립니다

무소유

법정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 김수환 추기경

교보·영풍문고 베스트셀러 진입

간지스 강가의 모래알 數의 간지스 강물에 가득한 모래알만큼의 七寶 공덕이 못 미치는 지혜, 법정 스님의 이름을 빌어 설파되는 무소유지혜. - 도올 김용옥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나눔과 섬김의 바탕은 무소유에 있다. '나무 한 그루 배어 내어 아깝지 않은 책'으로 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들었다. - 윤구병 반산공동체 대표

범우사 서울시 미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팩스 717-0429 인터넷 http://www.bumwoosa.co.kr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대영 박물관 신화 시리즈 출간

아즈텍과 마야 신화
칼 도메 / 이윤균 전경호 공역
신국판 / 180면 값 7,000원

이집트 신화
조지 허트 / 이윤균 전경호 공역
신국판 / 186면 값 7,000원

메소포타미아 신화
헨리에타 맥컬 / 임 응 옮김
신국판 / 184면 값 7,000원

로마 신화
제인 F. 기드너 / 이경희 옮김
신국판 / 156면 값 7,000원
* 전국 주요서점 판매중

그리스 신화
루실라 번 / 이경희 옮김
* 근간 예정임

범우사 서울시 미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FAX 717-0429 인터넷 주소 http://www.bumwoosa.co.kr